

Research Center

# 한투의 아침

■ Today's Focus

10월 스타일 아이디어: 실적에만 집중

■ 기업/산업분석

푸드나무, 의류

■ 경제/투자전략/글로벌자산관리

글로벌 이슈 Note: 명품을 투자로 바꾸는 방법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양패키징 외 5개 종목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투자 전략 | 박소연  
해외주식 | 백찬규  
해외채권 | 안재균

시황 분석 | 김대준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경제 분석 | 박정우

계량 분석 | 안혁  
중국 시장 | 최설화  
채권 분석 | 오창섭

스몰캡 전략 | 정훈석  
베트남 시장 | 이소연  
크레딧 분석 | 김기명

유동성 분석 | 송승연  
글로벌 ETF | 배호진

자산배분 전략 | 정현종  
글로벌 기업 | 정희석

## 10월 스타일 아이디어: 실적에만 집중

스타일 국면 모델은 1사분면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당분간 순환 궤적을 예상 3분기 어닝시즌 진행될 예정.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는 낮출 필요 추천 스타일: 이익모멘텀을 보유한 고 영업이익 증가율 관련 종목에 관심

### 스타일 모델의 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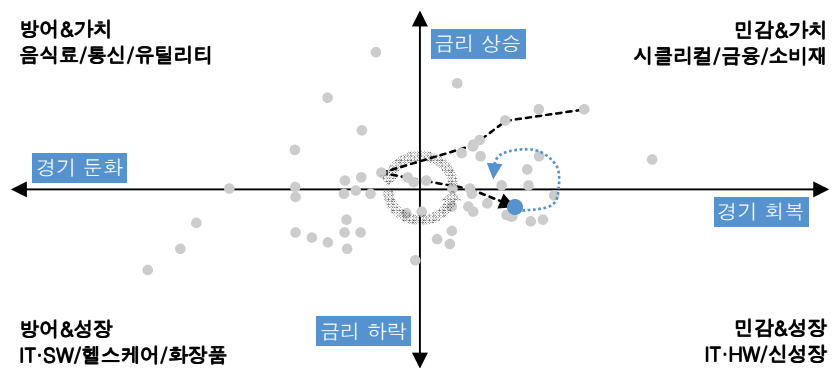
스타일 모델의 순환:  
4사분면 → 1사분면

이제부터 한 가지 스타일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 스타일 측면에서 성장과 가치는 당분간 엇치락 뒤치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한 쪽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스타일 국면 모델의 움직임을 고려한 전망이다.

스타일 모델은 이번 분기에 위로 방향을 틀 것이다. 즉, 경기 회복과 금리 상승을 의미하는 1사분면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다만 모델이 1사분면에 오래 머물진 않을 것이다. 예상 경로상 가로축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궤적이 그려진다.

그도 그럴 것이 X축인 미국의 경기모멘텀은 서서히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Y축인 금리모멘텀은 강약을 반복할 것이다. 특히 연준 FOMC를 전후로 금리는 위든 아래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당분간 일정한 속도감이 유지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림 1] 스타일 국면 모델: 4사분면과 1사분면 순환 예상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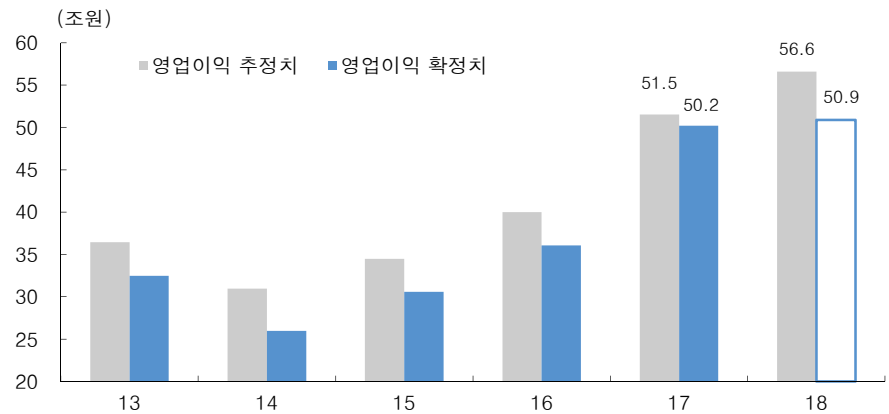
### 3분기 어닝시즌 도래

#### 3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낮출 필요

10월부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상장기업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된다. 우선 기대는 약간 낮춰야 한다. 현재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56.6조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매년 그렇듯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 적은 없다. 이번에도 분명 낮은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이익 괴리율인 10%를 적용해 봤다. 그 결과 3분기 영업이익은 50.9조원으로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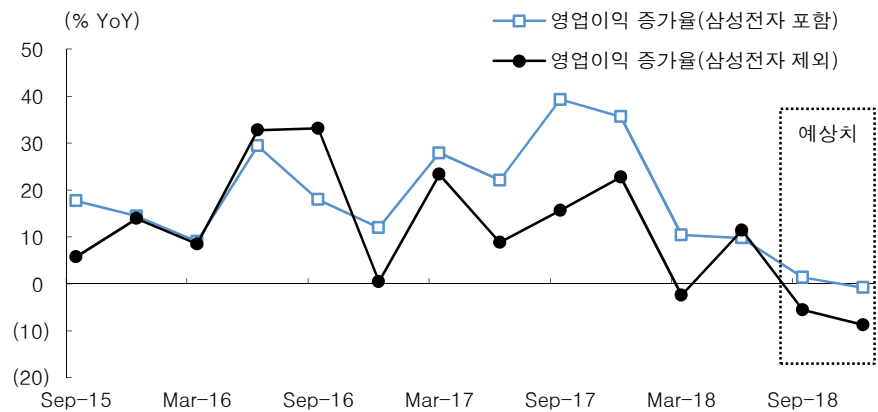
영업이익 증가율도 높지 않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익 증가율은 12.6%로 계산된다. 2017년 3분기 이익 증가율의 절반이다. 만약 괴리율을 감안하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4%로 급락한다.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보다 0.8%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다른 기업들의 이익모멘텀 역시 그리 강하지 않다는 걸 시사한다.

[그림 2] 코스피의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



주: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 대상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코스피의 영업이익 증가율: 삼성전자 포함 유무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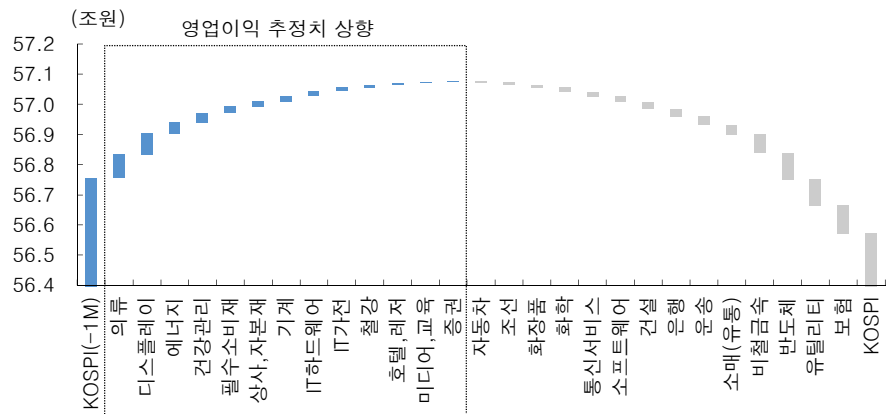
반도체, 은행 업종의 이익 추정치는 하향

업종별로 이익을 나눠보면, 현재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한 달간 하향되는 과정 중에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 업종은 13개였다. 의류, 호텔, 레저, 미디어 등 소비 관련 업종과 에너지, 산업재 등 시클리컬 섹터의 이익 전망치는 이전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반도체의 이익 전망치는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총액이 큰 은행도 부진하긴 마찬가지였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위 업종의 이익증가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전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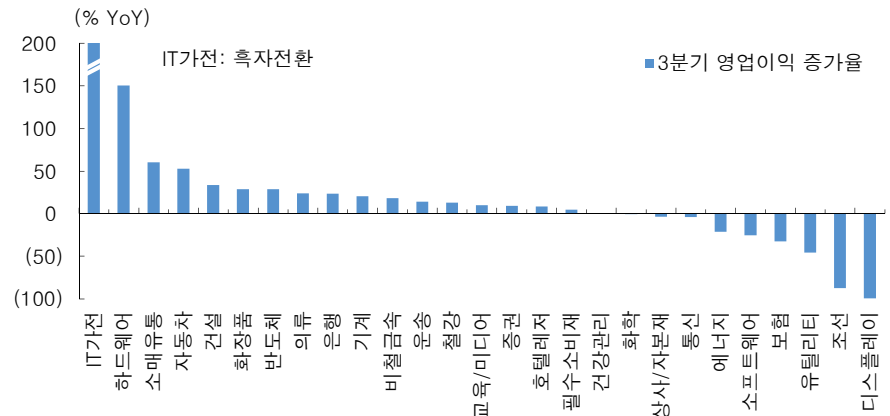
그나마 다행인 건 이익 전망이 낮아진 반도체와 은행의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이 아직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 해당 업종의 이익모멘텀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긴 이르다. 물론 최악이 아닐 뿐이지 이보다 더 좋아지진 않는다. 따라서 이익 전망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코스피 업종별 영업이익 변화



주: 업종별 이익 전망치의 1개월 변화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업종별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주: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 대상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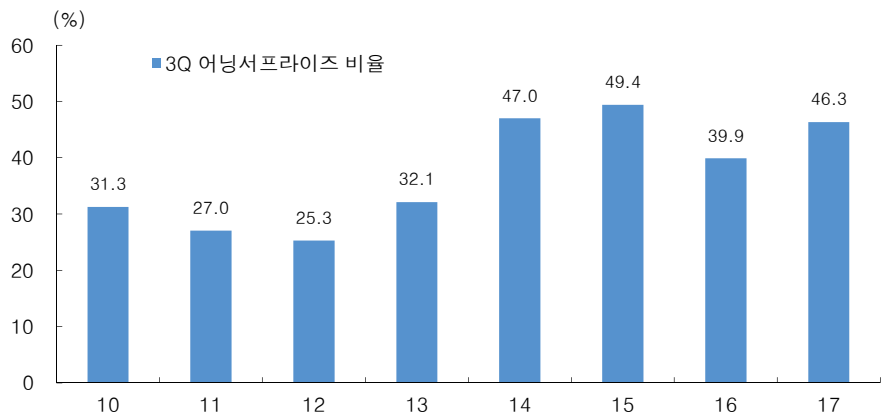
### 추천 스타일: 고 영업이익 증가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어려운 환경

3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실적 기대감이 서서히 고조될 수 있는 시점이다. 지난 5년간 3분기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이 점진적으로 올랐기에 낙관적 시각이 형성되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신중한 관점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최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보단 하향세를 그리는 게 좀 더 빈번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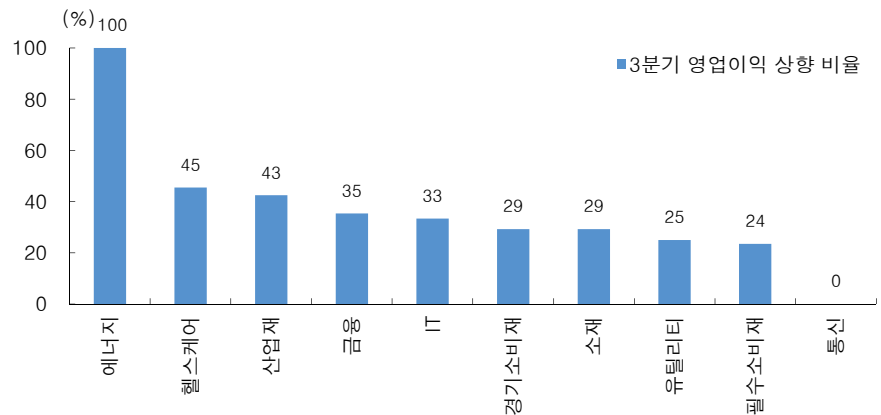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최근 한달 간 영업이익이 상향된 비율을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오직 에너지 업종만이 완전한 이익 상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을 고려하면 에너지의 이익 확정치는 예상치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여타 업종은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것이 샘플의 절반도 안 된다. 참고로 통신은 상향되는 종목이 전무하다. 이처럼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데 확정치가 과연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그림 6] 코스피 200의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비율



주: 이익 확정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간주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코스피 200의 업종별 이익 상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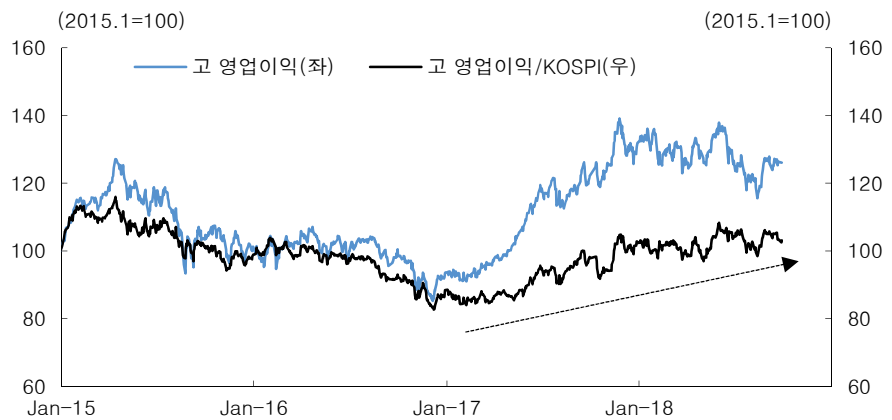
주: 이익 상향 비율 = 1개월 이익 전망치 변화 (+)인 기업 수 / 전체 기업수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추천 스타일:**  
**고 영업이익의 증가율**

10월에는 여러 스타일 중에서 고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추천한다. 동 스타일은 성장 팩터로 분류되어 일견 성장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편입된 종목을 살펴 보면 전통적인 성장주로 보기에 다소 거리가 있다. 예전과 달리 IT와 바이오로 편중된 바스켓이 아니다. 동 스타일은 단순하게 실적 유망주로 보는 게 적절하다.

고 영업이익의 증가율 스타일에는 20개 종목이 포함된다. 시가총액이 3,000억원을 상회하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가운데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높은 순으로 바스켓에 들어간다. <표 1>에서 보듯이 에너지, 산업재, 경기소비재 등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 있다.

**[그림 8] 고 영업이익의 증가율 스타일과 상대강도**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표 1> 고 영업이익의 증가율 종목 20선**

(단위: 십억원, 원, %, 배)

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9/28)	수정주가 (9/28)	12MF 영업이익 (9/28)	영업이익 증가율 (MoM)	영업이익 증가율 (YoY)	12MF PER (9/28)	12MT PBR (9/28)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35,332	534,000	161.8	2.7	203.0	192.7	7.3
A006400	삼성SDI	17,776	258,500	784.6	10.4	245.5	18.9	1.2
A009150	삼성전기	10,382	139,000	1,221.4	7.8	135.1	13.2	2.5
A035760	CJ ENM	5,438	248,000	368.6	2.6	110.0	11.4	1.2
A008770	호텔신라	4,258	108,500	284.7	2.0	149.3	22.0	6.3
A006360	GS건설	4,090	52,300	905.7	(1.0)	75.2	7.2	1.1
A042660	대우조선해양	3,715	34,650	554.0	(5.6)	343.2	13.8	0.7
A003410	쌍용양회	3,250	6,450	266.1	2.1	92.4	18.2	1.5
A011780	금호석유	3,001	98,500	571.9	(3.3)	128.2	6.9	1.5
A263750	펄어비스	2,753	213,800	291.8	1.3	64.1	11.0	7.8
A010060	OCI	2,623	110,000	337.9	(3.1)	65.2	11.3	0.7
A034230	파라다이스	1,905	20,950	65.2	(3.7)	78.6	57.8	1.6
A031430	신세계인터내셔널	1,628	228,000	83.5	5.2	143.4	23.9	2.9
A004000	롯데정밀화학	1,339	51,900	238.5	(2.6)	91.1	5.6	1.3
A001820	삼화콘덴서	774	74,500	94.5	19.5	410.8	10.7	9.4
A009580	무림P&P	658	10,550	122.9	5.9	253.2	7.5	0.9
A112040	위메이드	521	31,000	35.0	(43.1)	130.3	16.2	2.6
A005070	코스모신소재	494	25,000	31.6	5.3	116.4	22.5	4.9
A023160	태광	362	13,650	11.1	0.0	136.2	25.6	0.7
A166090	하나머티리얼즈	346	18,000	58.6	2.4	133.5	7.2	4.9

주: 시가총액 내림차순 기준. 음영은 헬스케어, 산업재 업종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IPO: 푸드나무(290720)

Not rated

## 온라인 유통플랫폼 기반의 간편건강식 판매 기업

### 기업개요

- 13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식품 제조, 도소매, 유통 및 다이어트,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콘텐츠 사업을 영위
- 가공 닭가슴살 제품과 소포장된 생닭가슴살을 주력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대표 보유 브랜드로는 '맛있닭, 러브잇, 더프레시, 베스탁' 등이 있음
- 17년 브랜드별 매출비중은 맛있닭(닭가슴살스테이크) 58.28%, 신선애(닭고기 신선육) 10.83%, 러브잇(슬라이스 닭가슴살) 8.96%, 기타 19.66%, 상품수수료 2.27%

### Stock Data

확정 공모가(원)	24,000
예상 시가총액(십억원)	163
공모 주식수(백만)	1.5
모집 총액(십억원)	37.3
공모 후 총 주식수(백만)	6.8
상장 예정일	10월 4일
주요주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74.3%

### 건강식에 대한 관심 늘면서 닭가슴살 매출 증가세 지속

- 직접 운영중인 판매채널(랭킹닭킴, 맛있닭, 네이버 스토어팜 등) 및 외부채널(쿠팡, 티몬, 11번가 등)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17년 판매처별 매출을 보면 자사몰 매출 비중이 약 81.8%를 기록하며 15년 92.4%, 16년 89.9%에 비해 감소. 그러나 비중과는 달리 절대 판매금액의 경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사몰 판매 비중 하락은 우려요인이 아님
- 자사몰 매출액은 15년 86억원에서 16년 200억원, 17년엔 28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18년 상반기엔 214억원을 기록
- 오프라인 판매는 18년 3월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입점을 통해 시작했으며 상반기 매출액은 1.3억원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 향후 다른 오프라인 채널로의 입점 확대 계획 중

### 확정공모가는 희망가액 상단을 돌파

- 공모희망가액 밴드는 peer 그룹 평균 PER 27.5배에서 29.7~17.3% 할인한 18,700~22,700원으로 제시되었지만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는 밴드 상단을 돌파하며 24,000원으로 확정되었음
- 18년 가이던스는 매출액 580억원(+67% YoY), 영업이익 84억원(+94% YoY). 향후 성장 전략은 '랭킹닭킴'을 통한 자사제품 판매 증대와 한입고구마, 다이어트 라면 등 간편건강식으로의 제품 라인업 확대, TV홈쇼핑 진출 등임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9.3	0.9	0.8	NM	NM	NM	NM	NM	NM	NM	NM
2016A	22.3	3.4	2.9	560	NM	6.4	NM	(0.7)	NM	75.6	NM
2017A	34.8	4.3	3.9	746	33.3	4.4	NM	(0.7)	NM	73.3	NM

주: 17년 이후 연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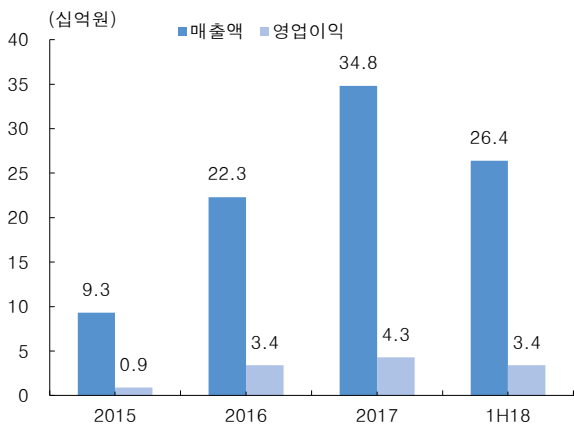
이내에

nylee@truefriend.com

### 간편건강식에 대한 선호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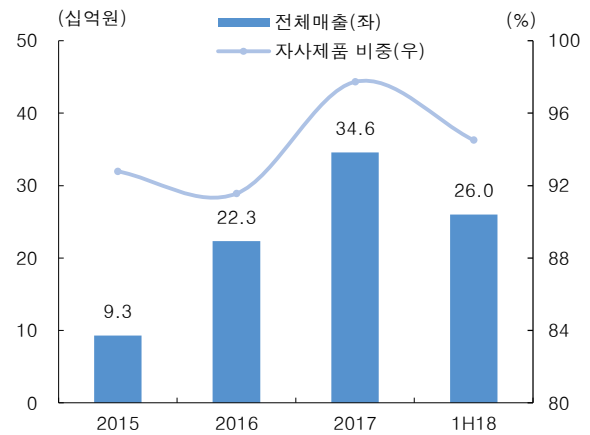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트렌드 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의 성장세 지속 중
-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 시간을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사 대체용인 간편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
- 푸드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간편건강식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닭고기 가공식품을 전문유통하고 있으며 향후 식품 분야 외에도 다이어트 전문 플랫폼인 '피키다이어트', 피트니스용품 전문 상거래 플랫폼인 '개근질마트' 등을 런칭할 예정이다

[그림 1] 연간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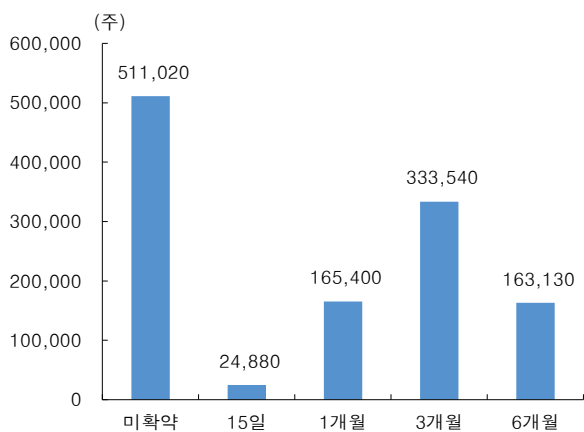
주: 17년 이후 연결기준  
자료: 푸드나무,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전체 매출 중 자사제품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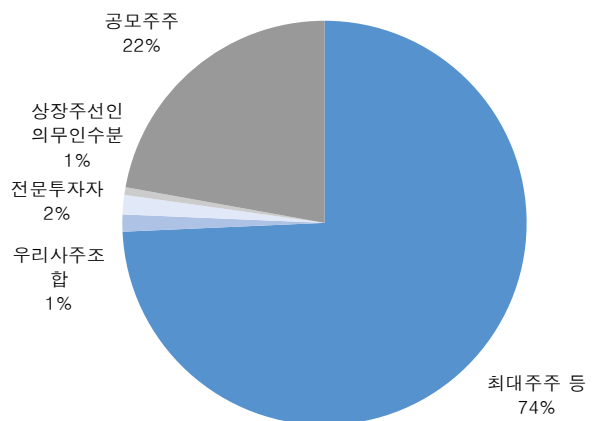
주: 별도실적 기준  
자료: 푸드나무,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기간별 배정현황



자료: 푸드나무,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공모 후 주주구성



자료: 푸드나무, 한국투자증권

# 의류

## OEM: 재도약을 향한 변화

**바닥 확인: 수요 회복과 외부 변수 안정화, 영원무역 최선호주**  
 의류 OEM이 2016~2017년 부진을 딛고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미주 의류 소비 호조에 따른 오더 회복과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도 부정적인 영향이 일단락되고 있다. 영원무역을 최선호주로, 화승엔터프라이즈와 한세실업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한다. OEM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 영원무역홀딩스와 화승인더스트리가 저평가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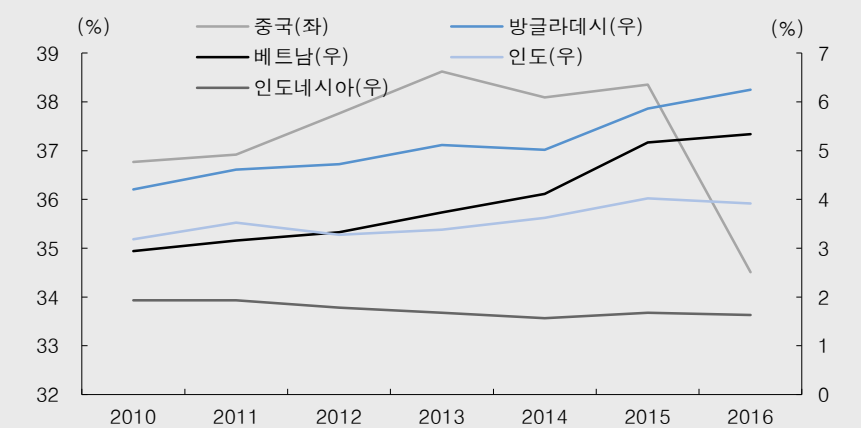
### 구조적 변화: 무역 분쟁으로 동남아 증장기 경쟁력 부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류 및 신발은 중국에서도 대미 수출 품목 중 13%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며, 미국 의류 수입에서 또한 중국이 의류와 신발 모두 1위국이다. 우리나라 OEM 업체들은 대부분 동남아에 생산 거점을 확보했고 이번 관세 부과 리스트에 주요 의류 및 신발은 해당되지 않아 무역 전쟁의 여파를 피해갈 것이다. 무역 분쟁이 심화되어 의류까지 확산될 경우, 동남아 지역의 경쟁력은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 투자 성과 가시화되는 업체에 집중

한국 OEM 업체들은 낮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로 만성적으로 저평가다. 그러나 과거 설비투자 및 증설, 수직 계열화와 브랜드 사업 확장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향후 투자 성과로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인한 ROE 상승이 예상된다. 2018년부터 영원무역은 브랜드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 화승엔터프라이즈와 한세실업의 투자 회수기가 예상된다.

### 글로벌 의류 수출 시장 점유율: 지는 중국, 떠오르는 동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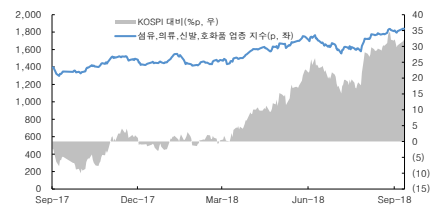


자료: WTO, 한국투자증권

## 비중확대(유지)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영원무역(111770)	매수	53,000원(상향)
화승엔터프라이즈(241590)	매수	18,000원(상향)
한세실업(105630)	매수(상향)	26,000원
영원무역홀딩스	(Not Rated)	
화승인더스트리	(Not Rated)	
한세에스24홀딩스	(Not Rated)	

### 12개월 업종 수익률



자료: WISEfn - WICS

# 명품을 투자로 바꾸는 방법

글로벌 경기개선으로 자산가치 증대, 실업률 하락, 소비심리 상향 등이 나타남  
명품 등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진행중  
관련 기업: 케링 · 에르메스 · 아마존 · 힐튼 · 소더비 · 나이키, ETF: GLUX.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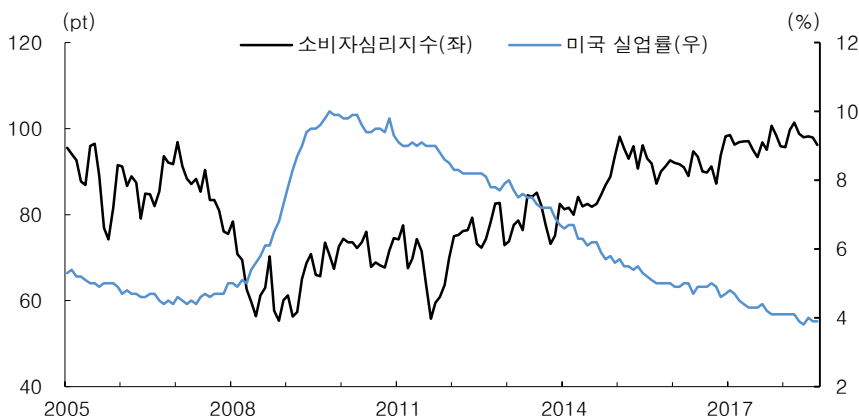
## 명품 매장 앞의 대기 행렬이 시사하는 점

지난 7월 롤렉스 예약열풍 때문에 광주의 한 백화점 문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고가 주얼리 업체인 티파니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구찌 매장의 긴 대기줄이 등장했다. 전세계적으로 명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개선에 기반한 자산가치 증대, 실업률 하락, 소비심리 상향, 소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 명품 등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진행중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개선과 자산가격 상승의 효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소비재와 사치재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실질 지출 및 소매판매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개선의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업종과 하위 산업으로는 고급소비재, 여행레저, 유통, 호텔, 크루즈, 경매 산업 등이 있다. 대표기업으로 케링, 에르메스, 아마존, 힐튼, 소더비 등이 있다. ETF로는 글로벌 명품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GLUX, 경기소비재 업종 XLY와 필수소비재 업종 XLP가 있다.

[그림 1] 낮아지는 실업률과 높아지는 소비심리



자료: FRED, 한국투자증권

## 티파니, 구찌, 롤렉스 명품 매장의 대기 행렬

한동안 판매 부진에 실적과 주가가 모두 좋지 않았던 미국의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는 지난해 10월 CEO가 알렉산드로 볼리올로로 교체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젊게 변하며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뉴욕의 “Tiffany Blue Box Cafe”는 티파니의 민트색으로 인테리어가 된 카페다. 29달러짜리의 아침, 39달러의 점심, 49달러의 저녁식사를 먹기 위해서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을 오픈하고 단 몇 초면 예약이 끝난다. 주얼리도 기존의 클래식한 분위기에서, 캐주얼에도 착용할 수 있는 티파니 페이퍼플라워 라인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로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요즘 아울렛이나 백화점에서 줄이 가장 긴 브랜드는 프랑스의 명품브랜드인 구찌이다. 구찌는 2015년 기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프리다 지아니니를 떠나보내고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미켈레가 오기 전 구찌는 판매부진에 시달려 이를 타개할 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미켈레가 온 이후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바뀌며 젊은이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얼마 전 롤렉스 시계를 단 하루 예약을 받은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 고객이 몰려 출입문이 파손됐던 일이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졌다. 롤렉스 시계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구입하기 힘든 상황으로 중고가격이 수백만원 더 비싸다는 기사도 나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내외 사치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배경과 전망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림 2] 티파니 블루박스 카페 대기 행렬



주: 뉴욕 티파니 블루박스 카페 앞 대기 줄  
자료: 언론보도,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롤렉스 예약에 백화점 출입 문 파손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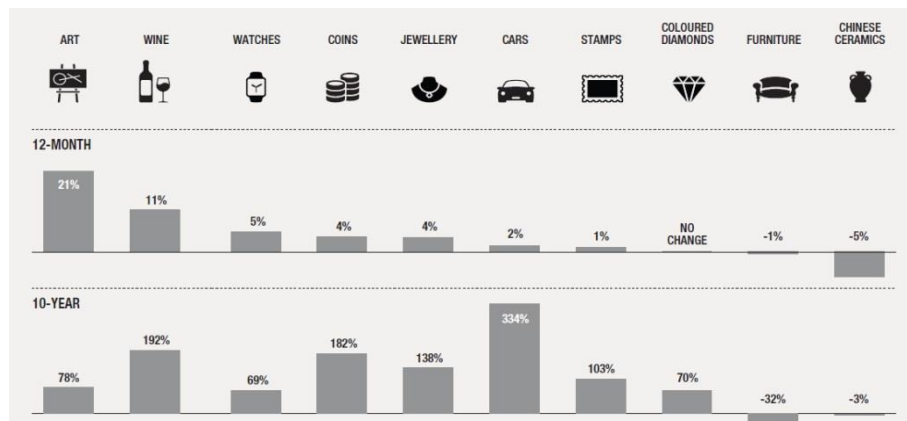
자료: 중앙일보(7월 2일 기사), 한국투자증권

## 500만달러 자산가의 구매 리스트

전세계적으로 500만달러(56억원) 이상을 보유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11만명에서 현재 253만명, 2022년에는 36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며 아시아와 북미에 집중돼 있다. Knight Frank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1년 동안에는 미술품, 와인, 시계 구매에 소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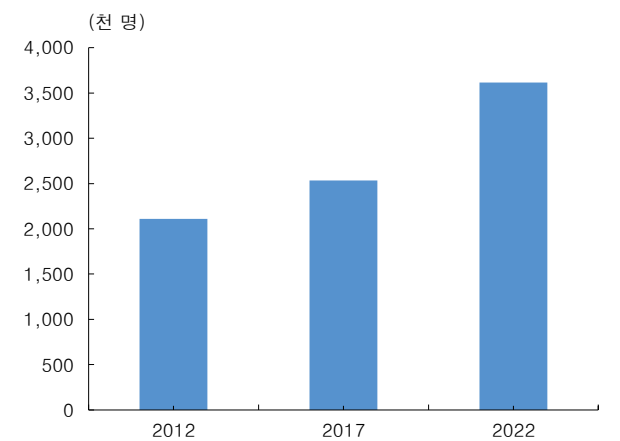
글로벌 명품업체의 판매증가를 통해서도 이런 현상을 알 수 있다.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Top 10 명품업체들의 2014~2016년 연평균 판매 증가율은 4.0%이다. 프랑스의 명품기업 에르메스(RMS.FP)의 매출액은 2009년 말 기준 19억유로에서 2017년말 기준 56억유로로 190% 증가했고, 주가는 93.3유로에서 446.3유로로 378.2% 상승했다.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아시아(일본제외)시장에서 35%, 미국 18%, 유럽 및 프랑스에서 33%의 매출을 올렸다.

[그림 4] 5백만달러 이상 보유 자산가들의 10년간 구매 증가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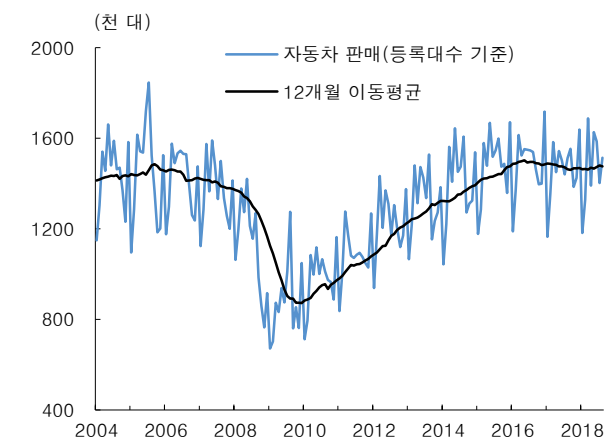
주: Knight Frank 발표 사치품 투자지수  
 자료: Knight Frank,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전세계 500만달러 이상 인구 증가 예상



자료: Knight Frank, 한국투자증권

[그림 6] 미국 내 차량 판매(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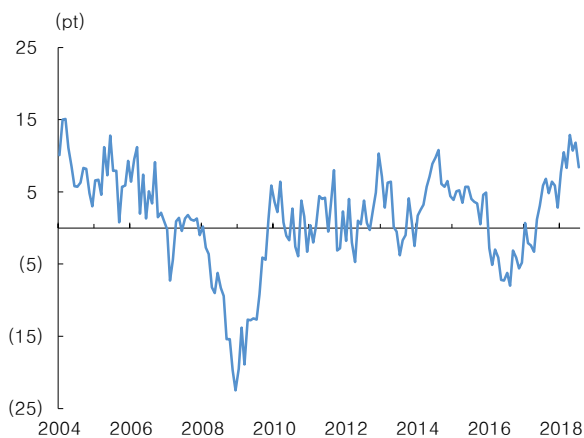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케링그룹(KER.FP)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사는 구찌(Gucci), 발렌시아가(Balenciaga), 생로랑(YSL), 보테가베네타(Bottega Veneta)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명품업체다. 2009년말 기준 매출액은 136억유로였으나 2017년말 기준 155억유로로 14.0% 증가했고, 동기간 주가는 93.3유로에서 446.3유로로 366.5% 상승했다. 2014년 EPS는 4.2유로였으나, 2018년 예상 21.3유로, 2019년 예상 24.5유로로 연평균 3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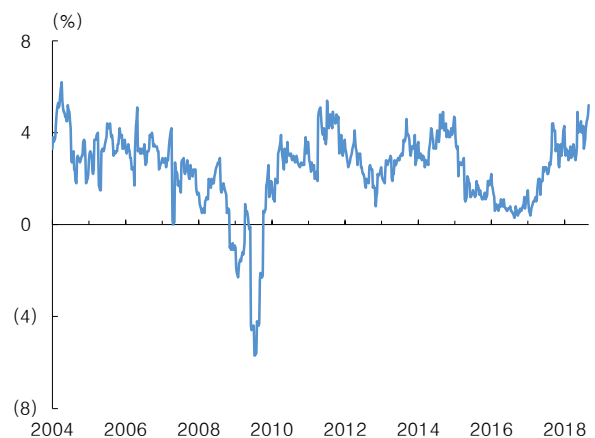
신규업체들의 2014~2016년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캐나다구스(Canada Goose) 36.0%, 판도라(Pandora) 30.3%, 발렌티노(Valentino) 26.9%, 홀라(Furla) 25.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연급한 기업들의 호실적은 북미, 아시아에서의 판매 증가에 기인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개선과 자산가격 상승의 효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보석, 시계, 명품 등 내구 소비재와 사치재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 내 보석 및 시계에 대한 소비자 실질 지출 및 소매판매지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림 7] 미국 내 보석 및 시계 소비자 실질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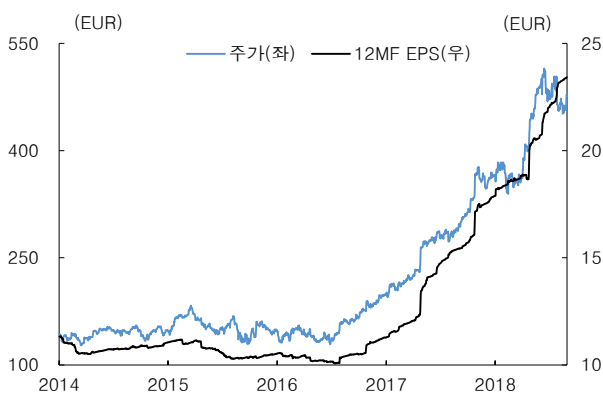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존슨 레드북 소매판매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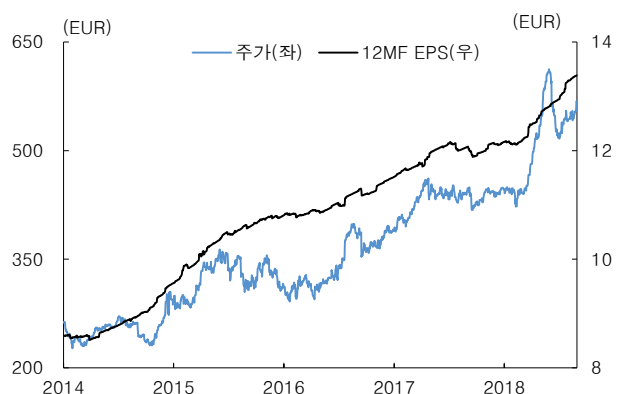
주: 존슨레드북 소매판매지수: 백화점 및 할인매장 주간 판매 증감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케링(KER) 주가 및 12개월 EPS 추정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에르메스(RMS) 주가 및 12개월 EPS 추정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소비결정 요소: 자산, 가처분소득, 실업률, 소비자심리지수

케인즈는 현재 얻고 있는 처분가능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소비성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절대소득 이론을 주장했다. 개인의 현재 소득 중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이 소비를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소비지출 결정하는 요인에는 자산, 가처분소득, 물가, 이자율이 있는데 해당 요인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보면 자산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은 증가한다. 한편 물가가 오르거나 이자율이 오르면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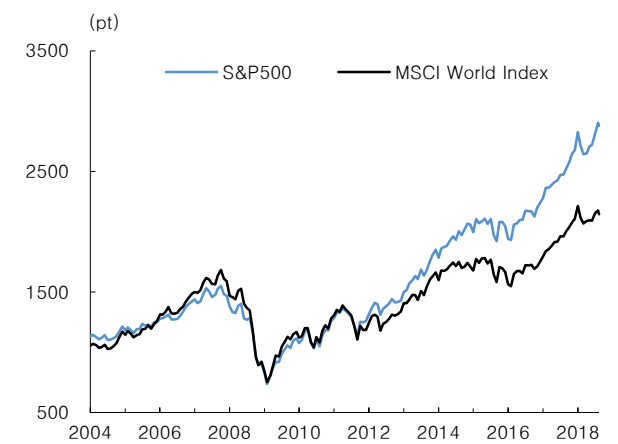
자산 부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현재를 비교한다면 주식과 부동산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S&P 500 지수는 금융위기 당시 최고점 대비 57.7% 하락했고, 부동산은 케이스-윌러 20개 도시 지수 기준 34.0% 하락했다. 현재 S&P 500은 2009년 3월 최저점에서 현재 335.8% 상승했고, 부동산 역시 회복에 성공했다. NCREIF 부동산 지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10년간 82.9% 상승했고, 케이스-윌러 20개 도시 주택지수가 10년간 26.5% 상승했다.

또한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요소인 개인 가처분소득이 [그림 12]와 같이 2008년 7월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23.1% 상승했고, 2011년 초와 비교해 보면 현재 약 18.8% 증가했다.

소비 수준의 결정에 있어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실업률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 10월 10.0%를 기록했다. 이후 미국의 경기개선과 통화정책 등을 통한 정책의 영향 등으로 2018년 8월 현재 자연실업률 이하인 3.9%로 떨어지며 2005년보다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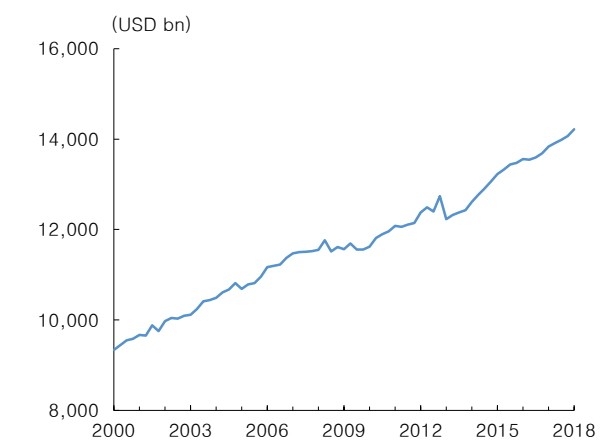
미국 소비자심리지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61.2, 2011년 8월 55.8을 기록했으나, 2018년 7월 97.9까지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을 100으로

[그림 11] S&P 500, MSCI World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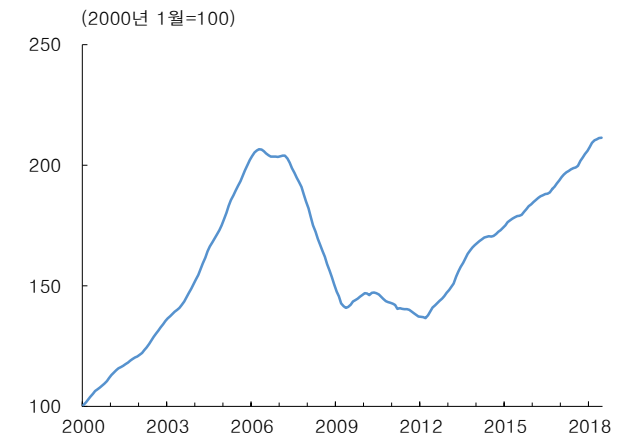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미국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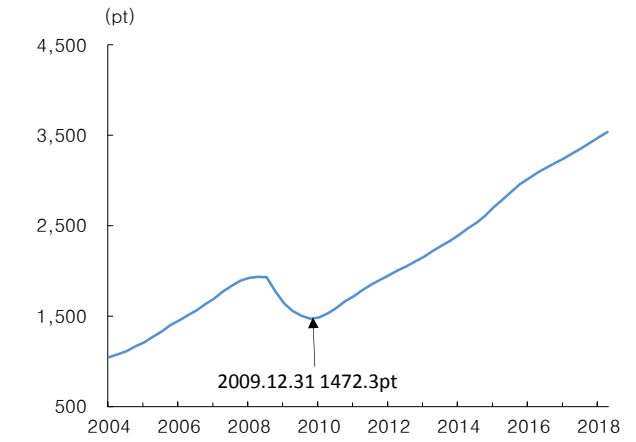
자료: FRED,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케이스-윌러 20개 도시 주택가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NCREIF 부동산지수



주: 미국의 주거용 및 비 주거용 부동산 가격변동  
자료: NCREIF,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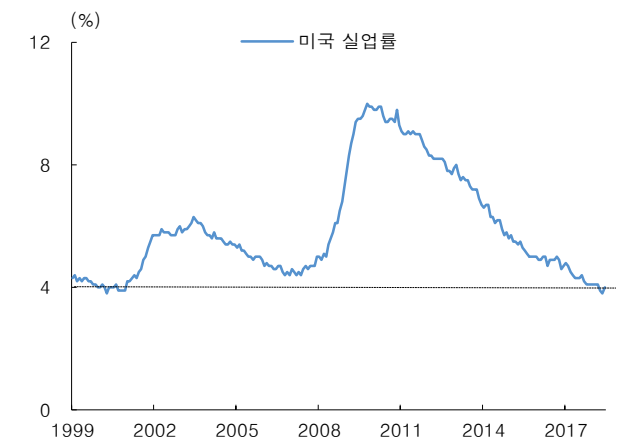
이보다 높으면 미래 소비를 많이 할 것을 나타내고, 100 아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9년 동안 소비자심리지수의 등락은 있었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설도우미> 케이스-윌러 지수, NCREIF 지수**

케이스-윌러지수: 정식 명칭은 케이스-윌러주택가격지수(Case-Shiller Home Price Indices). 전국 지수와 20개 개별 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대도시 통계지역) 지수, 10개 MSA를 종합한 10대 대도시지수(Composite 10 Index), 20개 MSA를 종합한 20대 대도시지수(Composite 20 Index) 등 4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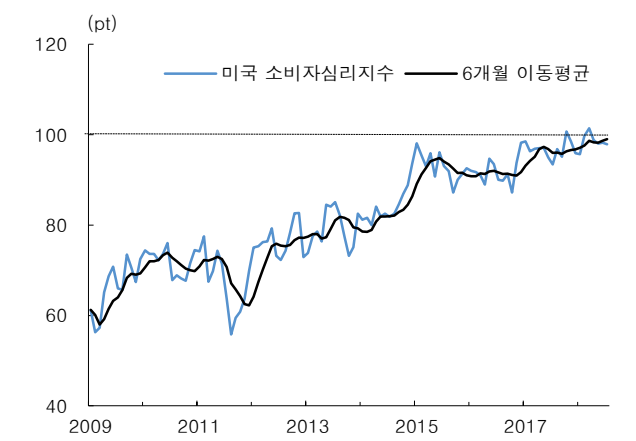
NCREIF 지수: 미국에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지수. 미국부동산투자자협회(NCREIF)가 작성하는 부동산투자지수(NPI)로 상업용 부동산 측정지표 전문회원이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 운용수익 관련 투자지수 작성

[그림 15] 미국 실업률



자료: 미국 노동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미시건대학교, 한국투자증권

## 소비지출에 대한 사회적 현상: 파노플리 효과 및 베블런 효과

소비를 결정하는 요소 중 자산과 가처분소득의 증가, 실업률 하락, 소비자심리지수는 상승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명품 매장의 대기 행렬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파노플리 효과와 베블런 효과다.

파노플리 효과(Panoplie Effect)는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1980년대 밝힌 개념으로,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그것을 소비할 것으로 여겨지는 계층이나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유명인이 명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면, 그 상품을 동일하게 구매하여 과시하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그 집단에 속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소득계층에서 고가품이나 명품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수입차 점유율이 늘어나며 현금 전액결제가 아닌 할부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 자동차 3사(벤츠, BMW, 폭스바겐)의 2016년 1분기 대비 2017년 1분기 할부금융액은 약 21.4% 증가했다.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한계급론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베블런이 사용한 용어이다. 최상류층 소비자가 사치재를 소비하는 이유는 과시욕에 기반하는 것이라 언급했다. 이들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실제 지불하는 금액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과시가격까지 고려하여 제품을 구입한다. 따라서 실제가격보다 과시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과시가격이 올라가면 그 제품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전체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롤렉스 시계의 경우 대표 모델인 서브마리너 블랙 모델은 2008년 7,250달러였으나 현재 8,500달러이고, 데이저스트 골드 모델은 같은 시기에 27,650달러에서 34,850달러로 인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17] 파노플리 효과



자료: NAVER,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베블런 효과



자료: NAVER, 한국투자증권

## 투자 아이디어: 자유소비재, 고급소비재,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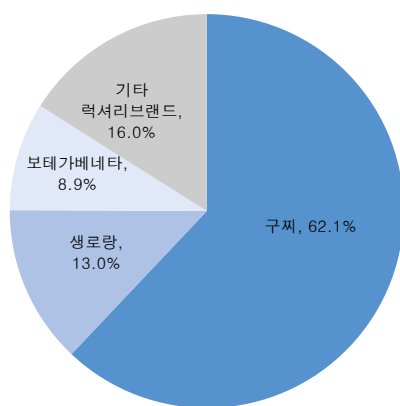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실업률이 하락하고,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 상승국면에서 개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과 산업 그리고 ETF 및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본다.

자유소비재 업종은 미국 소비 개선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외식업체 등의 업체의 매출 증가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 기업으로는 아마존(AMZN.US), 홈디포(HD.US), 나이키(NKE.US), 타겟(TGT.US), 메이시스(M.US), 노드스톰(JWN.US), 스타벅스(SUBX.US) 등이 있다. 다만 미국 소비시장의 판도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ETF를 통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고급소비재, 소위 사치재라 불리는 명품산업 역시 주목해야 한다. 관련 제품은 고급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차별화된 품질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우선 글로벌 명품 업체가 고급소비재의 핵심 기업이라 하겠다. 관련 기업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인기를 끈 업체들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Lyst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핫 브랜드 순위를 보면 구찌, 발렌시아가, 베트멍 순이었다. 프라다, 페라가모, 버버리 등은 2017년 브랜드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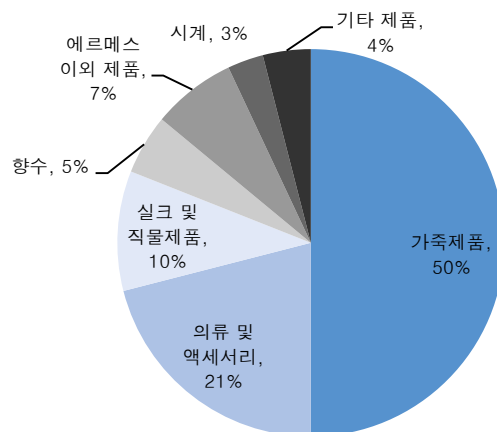
핫 브랜드 순위에서 1, 2위 업체인 구찌와 발렌시아가는 케링(KEP.PR)이 보유하고 있다. 케링은 구찌, 발렌시아가 외에도 생로랑, 보테가베네타, 알렉산더 맥퀸, 포멜라토 등을 보유한 프랑스의 명품 업체이다. 시가총액은 600억유로로 지난 1년간 48.5%(9월 28일 기준) 상승했다. 케링의 럭셔리 제품들이 향후 10년 동안 산업 내에서 매년 5%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구찌는 2018년 그룹 매출의 59%, 세전 영업이익의 76%를 차지할 것이다. 주당순이익은 2017년 21.3유로, 2018년 20.97유로, 2019년 24.52유로로 양호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배당수익률도 1.5%에서 1.6%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림 19] Kering 브랜드별 순이익 비중(2018년 1분기)



자료: Kering,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2017년 에르메스 판매 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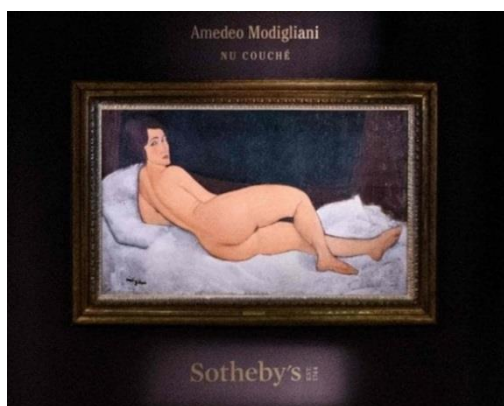
자료: 에르메스,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 에르메스(RMS.PR)가 있다. 동사의 시가총액은 560억달러로 지난 1년간 34.2%(9월 28일 기준) 증가했다. 동사의 ROIC(투자자본이익률)는 경쟁업체 대비 높은 특징이 있다. 2017년 에르메스의 ROIC는 40.0%인 반면 케링은 14.6%, 루이비통 14.0%, 버버리 21.7%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판매액 연평균 증가율은 13.0%로 경쟁업체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에르메스는 2019년과 2020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34.3%, 34.6%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으나 전통적인 명품 업체로서 꾸준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에르메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급소비재 영역에서 미술품, 악기, 슈퍼카, 골동품과 같은 컬렉션을 빼놓을 수 없다. 경매시장 규모의 성장에 따른 수혜 기업으로는 소더비 Sotheby's(BID.US)가 있다. 2017년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된 와인의 경매 거래액은 총 6,400만달러(689억원)의 판매를 기록했고, 지난 6월 부르그뉴 와인의 거장으로 불리는 고 앙리 자이에의 개인소장 와인은 3,450만스위스프랑(386억원)에 낙찰됐다. 또한 지난 8월 경매에서는 1962년형 페라리 250 GTO가 4,840만달러(540억원)에 낙찰됐는데, 이 차량은 2000년 당시 1,000만달러(111억원)에 낙찰됐었다. 이탈리아 태생으로 파리에서 활동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모딜리아니의 작품 ‘누워있는 나무’는 역대 미술품 경매 중 사상 4번째로 높은 가격인 1억5,720만달러(1,681억원)에 낙찰됐다. 판매자는 지난 2003년 2,690만달러(288억원)에 구매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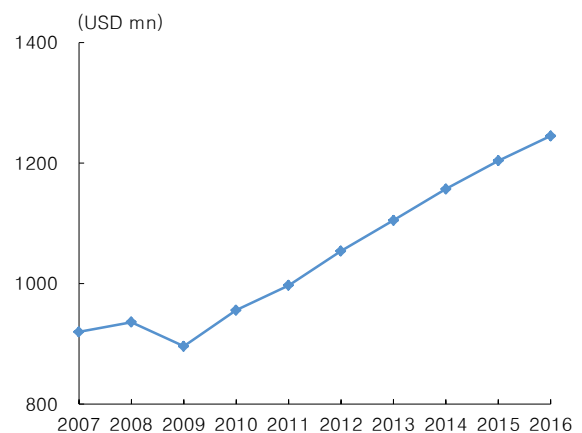
여행산업 역시 소비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전세계 여행객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억명 수준에서 2016년 12.5억명으로 증가했다. 관련 기업으로는 호텔레저 산업에서 로얄캐리비안크루즈(RCL.US)와 힐튼(HLT.US)이 있다.

[그림 21] 역대 미술품 경매 사상 4번째 금액 낙찰



주: 모딜리아니 '누워있는 나무'  
 자료: 언론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22] 전세계 여행객수(입국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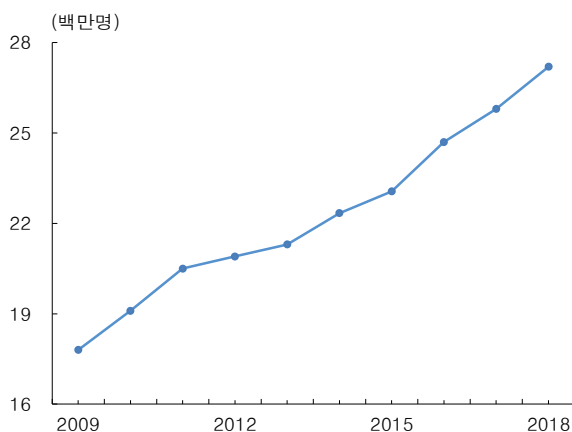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 한국투자증권

로얄캐리비안크루즈(RCL.US)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크루즈 여행시장 내 선도기업이다.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에 따르면 전세계 크루즈 탑승객수도 2009년 1,780만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2,7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크루즈 시장은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밀레니얼세대의 여행 수요 증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 늘어나는 승객에 따라 ROE는 2015년 8.2%에서 2016년 14.9%, 2017년 16.4% 상승했다. 북미 크루즈 시장은 3개 대형사에서 나눠 갖고 있지만, 로얄캐리비안크루즈는 미국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캐리비안 지역의 점유율이 높기에 북미의 소득 증가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여행객 증가에 따라 호텔업종 역시 수혜가 기대된다. 최근 전통 숙박업이 아닌 공유기반의 Airbnb의 등장으로 기존 호텔체인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고객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호텔 체인들은 기존의 브랜드보다 젊은 감각의 호텔로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매리어트는 Moxxy라는 브랜드의 호텔을 운영중이고, 힐튼의 경우 미국의 주요도시와 아이슬란드 중국 등에 Canopy라는 브랜드의 호텔을 운영중이다.

힐튼(HLT.US)을 호텔산업내 관심을 주요 기업으로 제시한다. 힐튼은 전세계 85만6천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다. 객실의 1일당 평균 이용료는 144.8달러로 전체 호텔 평균인 120.8달러를 상회한다. 매출액 증가는 23.8%로 업계평균 12.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년 EPS 증가율과 ROE는 각각 32.8%와 71.7달러를 기록하며 업계평균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림 23] 전세계 크루즈 승객 수



자료: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힐튼 Canopy



주: Hilton Canopy Reykjavik 로비  
자료: 구글, 한국투자증권

관련 ETF로는 프랑스에 상장된 럭셔리 ETF와 미국 소비재 관련 ETF가 있다. 프랑스에 상장된 ETF인 GLUX는 유럽, 미국 등 지역에 구분을 크게 두지 않고 명품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보유 종목 상위기업은 조니워커, 윈저, 기네스 등을 만드는 글로벌 주류브랜드인 Diageo를 8.0%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루이비통, 나이키, 다임러, IWC 등을 보유한 리치몬트, 시바스리갈 등을 만드는 Pernod Ricard, 케링, BMW, 에스티로더, 테슬라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1년 수익률은 9월 20일 기준으로 14.7%, 2018년 들어 6.3%이다.

미국 소비 개선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경기소비재 ETF인 XLY가 있다. 보유상위 종목으로는 Amazon, Home depot, Comcast, Walt Disney, Netflix, McDonald's, Nike, Booking Holdings, Lowe's Companies, Starbucks, TJX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상위에 다수 포진하고 있다. 다만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24.5%를 차지하고 있기에 아마존 주가 등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표 1> 소비재 및 고급소비재 theme & stocks

(단위: 백만달러, 달러, %, 배)

종목명	티커	매출액			EPS			2018F ROE	12MF PER	Trailing PBR	1M	3M	YTD	12M
		2018F	2019F	증감률	2018F	2019F	증감률							
KERING	KER FP	15,566	17,277	11.0	25	29	15.6	28.0	21.6	6.3	(0.9)	(4.1)	27.0	48.0
HERMES	RMS FP	6,937	7,516	8.3	15	16	8.8	25.3	44.8	12.5	1.7	8.8	28.8	34.8
AMAZON	AMZN US	235,070	286,709	22.0	26.8	37.1	38.5	22.4	74.9	27.9	(0.5)	17.8	71.3	108.4
NIKE	NKE US	39,208	42,139	7.5	2.7	3.1	18.2	45.1	31.9	15.0	3.1	6.3	35.4	63.4
SOTHEBY'S	BID US	1,010	1,039	2.9	2	3	30.6	N/A	22.8	4.2	2.4	(9.5)	(4.7)	6.7
HILTON	HLT US	9,113	9,862	8.2	3	3	14.4	73.8	29.9	42.2	4.1	2.0	1.2	16.3
HOME DEPOT	HD US	108,315	112,423	3.8	9.6	10.3	7.1	910.1	21.6	118.3	3.2	6.2	9.3	26.7
NORDSTROM	JWN US	15,885	16,294	2.6	3.6	3.8	5.2	53.0	16.6	8.9	(4.8)	15.5	26.2	26.9
STARBUCKS CORP	SBUX US	24,706	26,158	5.9	2	3	9.7	69.6	23.6	19.0	6.3	16.4	(1.0)	5.8
LVMH	MC FP	54,569	58,582	7.4	15	16	8.6	20.3	24.3	5.1	1.4	7.3	24.8	31.1
TIFFANY & CO	TIF US	4,571	4,827	5.6	5	5	13.2	17.9	26.7	5.1	5.2	(2.0)	24.1	40.5
ESTEE LAUDER	EL US	14,324	15,236	6.4	5	5	10.7	36.2	30.4	11.4	3.7	1.8	14.2	34.8
ROYAL CARIBBEAN CRUISES LTD	RCL US	9,425	10,387	10.2	9	10	13.9	16.8	14.6	2.5	6.0	25.4	8.9	9.6

주: 9월 28일 증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2> 소비증가 수혜 유망 ETF 3選

(단위: USD mn, 주, %)

티커	이름	투자대상	자산총액	평균 거래량	보수율	추적오차	1M	3M	12M	YTD
GLUX	AMUNDI S&P GLOBAL LUXURY	글로벌 럭셔리 그룹	85.1	2650.6	0.3	2.9	(0.5)	0.0	9.4	7.9
XLY	CONSUMER DISCRETIONARY SELT	미국 자유 소비재	16218.9	4725609.5	0.1	0.4	0.2	7.2	15.7	18.8
XLP	CONSUMER STAPLES SPDR	미국 필수 소비재	9256.7	10799609.0	0.1	0.3	0.3	4.7	2.5	(5.2)

주: 9월 28일 증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세로 폭락

- 뉴욕증시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협정 타결 소식에 힘입어 다우지수와 S&P500 지수가 상승한 반면 페이스북과 인텔 주가 하락 여파로 나스닥이 소폭 하락하며 혼조세로 마감.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이내 하락전환 후 오후들어 낙폭을 확대함. 외국인의 공격적인 현선물 매도세와 사모펀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매도세로 1% 이상 급락하며 2,310P선 아래로 밀려남.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로 2.5% 이상 폭락하며 800P선 아래로 밀려남. 최근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한 전망과 함께 이날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함이 충돌직전 상황까지 연출되며 양국간 무역갈등이 격화되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됨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노르웨이선사로부터 셔틀탱커 2척을 수주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진 현대중공업이 강세를 보였으며, 북한에 100여종의 종자 10톤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아시아종묘가 초강세를 보임. 하반기 실적이 우려와 달리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도이치모터스가 이틀 연속 급등했으며, 전문의약품 생산 업체인 하나제약은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 형성 후 상승폭을 확대했으나 장 막판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분을 일부 반납. 또한, 3분기 수주한 방산사업들이 매출에 반영되며 실적 정상화 전망에 LIG넥스원이 강세를 보였으며,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에 국제유가가 4년만에 75달러를 회복하며 석유화학주도 동반 강세를 보임. 반면, 임상 결과를 해외 학회지에 투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급등했던 동성제약이 허위 논란에 휩싸이며 연일 급락, 이에 임상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며 제약/바이오 업종도 동반 약세를 보임.

종목/데마	내 용
<b>현대중공업(009540)</b> <b>▶141,500 (+3.66%)</b>	<b>3분기 실적 및 수주 기대감에 강세</b> - 노르웨이 케이노트(KNOT)로부터 15만3000톤급 셔틀탱커 2척을 총 2억1,000만달러에 수주했다는 소식에 강세. 셔틀탱커 수주는 2015년 이후 3년 만인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연간 신규수주는 5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는 올해 대비 발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동사의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
<b>아시아종묘(154030)</b> <b>▶6,170 (+15.11%)</b>	<b>북한 종자 지원 소식에 초강세</b> -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약 10톤에 달하는 100여개의 품종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초강세. 동사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종자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 남북 경협 시 농업 지원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 - 최근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
<b>하나제약(293480)</b> <b>▶33,150 (+10.13%)</b>	<b>신규 상장 첫날 초강세</b> - 전문의약품 제조업체로 신규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도는 시초가 형성 후 초강세. 마취·마약류 의약품 및 소화기, 순환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품목이 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혁신적인 마취제 신약인 레미마졸람의 국내 독점 판권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연구개발 중
<b>석유화학주</b>	<b>국제유가 강세에 동반 상승</b> -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앞두고 국제유가가 75달러선을 돌파하며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 이에 정제마진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진양화학(051630, +8.37%), 동성화인텍(033500, +7.98%), OCI(010060, +4.05%), 코스모화학(005420, +2.93%), 조비(001550, +2.82%), 효성(004800, +2.03%)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b>이수페타시스(007660)</b> <b>▶6,380 (+2.90%)</b>	- 3분기 턴어라운드 전망 및 5G 투자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며 신고가 행진

##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스원 (012750)	91,900 (+9.0%)	84,300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 편의점 확대 시 업무 지능화 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점포당 관리 수익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li> <li>- 현재 10개의 무인주차장을 2019년까지 50개로 확대 운영할 전망</li> <li>-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탄력근무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 등 근무형태 다변화에 따라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업체 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li> </ul>
와이솔 (122990)	17,500 (-0.3)	17,5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통신 서비스의 개화로 기존 2GHz 이하에 이용됐던 표면탄성필터(SAW)에 더해 고주파를 선별하는 벌크탄성파필터(BAW)가 추가되어 동사 필터 사업부문의 수혜 전망</li> <li>- SK텔레콤의 IoT 전용망 모듈 납품자로 선정됨에 따라 커넥티드 수요 증가로 IoT모듈 사업부문의 수혜 및 모듈 신사업에서의 성장 기대</li> </ul>
디지털대성 (068930)	4,465 (-0.9)	4,50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에서의 르네상스리닝 콘텐츠 독점 판매권 확보로 4분기부터 매출 본격화 전망</li> <li>- 2012년 비상예유 인수 이후 현금성자산을 이용한 M&amp;A를 통해 지속적인 실적 개선 기대</li> <li>-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실적 성장으로 올해 최대 실적 전망</li> </ul>
정상제이엘에스 (040420)	7,460 (+3.8)	7,190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성이 높은 온라인 부문과 해외 교재 매출이 증가하며 지속적인 외형성장 전망</li> <li>- 수학부문에서의 외형 확대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기대</li> <li>- 배당수익률 6%에 육박하는 고배당 매력 보유</li> </ul>
한국전자금융 (063570)	13,100 (+15.4)	11,350 (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무인자동화기기와 무인주차장의 수요 증가 전망</li> <li>- ATM 관리 과점 사업자로 ATM기기 감소 추세에도 은행의 아웃소싱 비중이 낮아 향후 동사의 시장 확대 가능성 유효</li> <li>- 국내 1위 CD VAN 사업자인 BGF핀링크를 흡수합병하고 매출이 확대됨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확대 전망</li> </ul>
매일유업 (267980)	80,500 (-10.5)	89,900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수익 제품 비중 상승, 원유 손실 축소로 유가공 마진 개선 지속</li> <li>- 중국향 분유 수출은 바닥 통과 후 점진적인 개선 진행 중</li> <li>- 작년 2분기는 사드 영향으로 수출 분유의 기저가 낮아서 2분기 실적 개선 예상</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삼양패키징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8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양패키징 (122990)	17,550 (-10.2)	19,550 (8/17)	356	40	25	1,765	10.2
- 판매단가 인상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영업마진의 점진적 개선 전망 - 19년 1분기까지 기저효과가 지속되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 - 연이은 고부가 제품 증설 및 가동에 따라 고속 성장기 진입 전망							
현대백화점 (069960)	99,200 (+2.0)	97,300 (8/2)	1,880	406	287	12,705	7.8
- 명품 소비 증가로 기존점 매출액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12월 천호점 그랜드 오픈 및 11월 무역센터점 면세점 오픈 등에 따라 이익 모멘텀 확대 전망 - 본업 호조와 신규 사업으로 이익 모멘텀을 확보하였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하츠 (066130)	5,090 (+10.4)	4,610 (7/4)	112	7	6	495	10.3
- 기존 공기청정기 시장과 다른 환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위해 공기청정 기능과 환기기능을 동시에 갖춘 환기청정기 제품 개발 - B2B 고객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B2C 공략을 위해서 하츠몰, 하츠앱, 소셜커머스, 하이마트로 판매 채널 확장 -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실내 공기질 종합 관리 기업인 동사에 대한 수혜 전망							
신대양제지 (016590)	87,200 (+12.4)	77,600 (6/28)	688	103	76	18,962	4.8
-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65억원(+25.6% QoQ, +419% YoY)으로 전년 동기대비 5배가 넘는 이익 창출 예상 - 미국의 수출 지역인 중국과 동남 아시아 시장으로 한국 골판지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 상존 - 지배순이익이 peer그룹인 무림P&P(160억원) 대비 불과 5% 적지만 시가총액은 무림P&P의 절반에 불과한 염가 구간							
포스코강판 (058430)	23,250 (+2.9)	22,600 (5/30)	944	25	23	3,757	6.5
- 냉연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스프레드 반등 예상 -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3분기부터 컬러강판 생산능력 증가 전망 - 냉연 스프레드 사이클의 저점으로 판단되며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기 (009150)	138,000 (+19.5)	115,500 (4/13)	8,016	702	427	5,656	26.7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부품간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는 부품) 호황이 구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수혜국면 지속 전망 - 삼성전자의 듀얼카메라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세 지속 전망 - 내년 갤럭시S10에 3D센싱카메라가 탑재된다면 이와 관련한 모듈 제작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기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삼양패키징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국내외 금융시장 및 수급 동향

### 한국시장 주요 지표

한국 주요지수	10/2(화) 종가	등락률(%)			
		1D	1W	1M	YTD
KOSPI	2,309.57	(1.25)	(1.27)	(0.57)	(6.40)
KOSPI200	296.53	(1.21)	(1.42)	(1.18)	(8.69)
대형주	2,216.04	(1.26)	(1.30)	(0.73)	(8.39)
중형주	2,712.43	(1.08)	(0.62)	1.04	(0.83)
소형주	2,180.79	(1.32)	(2.03)	(1.11)	7.24
KOSDAQ	794.99	(2.64)	(3.97)	(2.69)	(0.43)
KOSDAQ150	1,348.50	(3.75)	(4.97)	(2.03)	(4.62)

수급	10/2(화)	1D	1W	1M	YTD
거래량	KOSPI	281	293	319	410
(백만 주, 기간 평균)	KOSDAQ	578	587	623	861
거래대금	KOSPI	6,168	6,811	6,457	6,795
(십억 원, 기간 평균)	KOSDAQ	3,933	3,994	4,605	5,446

(단위: %, bp)

금리	10/2(화)	1D	1W	1M	YTD
국고채 3년물	2.02	1.30	0.00	10.50	(11.90)
국고채 5년물	2.20	2.00	(2.00)	9.30	(15.20)
국고채 10년물	2.38	2.50	(3.00)	7.00	(8.70)
회사채 3년(AAA-)	2.45	1.30	0.00	10.50	(10.00)
회사채 3년(BBB-)	8.44	1.30	0.00	10.00	(34.40)

(단위: 원, %)

외환	10/2(화)	1D	1W	1M	YTD
원/달러	1119.1	(0.66)	0.02	(0.78)	(4.62)
원/100엔	985.6	(0.90)	0.47	1.52	(3.93)
원/유로	1292.0	(0.33)	1.78	(0.24)	(1.23)
원/위안	162.9	(0.67)	0.04	(0.04)	0.70

업종 지수	10/2(화)	등락률(%)			
		1D	1W	1M	YTD
<b>KRX 업종 지수</b>					
자동차	1,491.46	(0.65)	(1.43)	1.81	(14.29)
반도체	2,205.77	(2.01)	(4.34)	(10.59)	(20.76)
헬스케어	4,128.54	(3.96)	(6.61)	(0.07)	7.37
은행	873.88	(0.70)	2.53	4.10	(6.72)
에너지화학	2,524.07	(0.65)	1.89	0.47	(8.69)
철강	1,733.52	(0.89)	(1.52)	0.76	(15.56)
방송통신	1,075.32	(1.79)	(0.80)	3.12	4.76
건설	723.06	(0.05)	1.44	8.33	28.92
증권	677.14	(3.03)	(1.82)	0.56	(4.97)
기계장비	629.25	1.09	3.04	12.16	17.57
보험	1,701.67	(0.74)	4.74	6.30	(12.11)
운송	566.36	(1.02)	(1.47)	3.56	(2.51)
유틸리티	1,229.42	(0.11)	2.25	4.53	4.40

업종 지수	10/2(화)	1D	1W	1M	YTD
<b>KOSDAQ150</b>					
기술주	1,591.33	(4.10)	(5.69)	(3.83)	(7.23)
소재	1,534.58	(2.58)	(3.87)	1.87	(2.28)
산업재	259.66	(1.45)	(2.95)	(2.66)	(17.00)
필수소비재	823.64	(3.16)	(0.58)	7.41	(19.39)
자유소비재	1,413.78	(2.78)	(3.52)	1.28	20.93
정보기술	585.17	(1.70)	(3.73)	(9.15)	(22.88)
생명기술	4,546.06	(5.29)	(7.36)	(1.63)	(3.50)
문화기술	2,658.94	(4.05)	1.66	2.99	18.91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국가, 지자체)	기타	
유가증권	매수	3,687	1,305	1,188	316	92	145	134	8	182	310	54
	매도	3,378	1,549	1,270	275	86	179	190	9	227	303	36
	순매수	309	(244)	(82)	42	6	(34)	(56)	(0)	(45)	6	17
	2018년 10월 누계	433	(298)	(170)	(33)	3	2	(73)	(3)	(23)	(42)	35
	2018년 누계	7,174	(2,366)	(5,806)	(2,394)	(1,165)	59	(679)	(262)	(591)	(773)	999
코스닥	매수	3,403	342	185	55	12	34	40	2	29	13	26
	매도	3,184	437	306	78	20	88	70	4	27	18	28
	순매수	219	(95)	(121)	(23)	(8)	(54)	(30)	(2)	1	(5)	(2)
	2018년 10월 누계	329	(111)	(214)	(19)	(15)	(76)	(82)	(3)	(9)	(9)	(4)
	2018년 누계	3,388	(340)	(856)	29	129	406	(1,146)	(128)	(216)	71	(2,192)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조선	438	건강관리	(959)	건설,건축관련	266	반도체	(678)
	IT하드웨어	269	반도체	(414)	기계	181	IT하드웨어	(630)
	상사,자본재	221	소프트웨어	(209)	화학	159	소프트웨어	(302)
	건설,건축관련	167	증권	(173)	IT가전	85	호텔,레저서비스	(288)
	은행	153	호텔,레저서비스	(168)	조선	66	상사,자본재	(260)
종목	현대중공업	251	하나제약	(598)	삼성엔지니어링	153	삼성전기	(592)
	넷마블	203	NAVER	(356)	동성제약	118	SK하이닉스	(582)
	삼성전기	198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84)	NAVER	113	한국항공우주	(228)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123	LG화학	(213)	현대로템	112	하나제약	(203)
	현대엘리베이	112	SK하이닉스	(208)	S-Oil	80	엔씨소프트	(174)
	OCI	102	삼성전자	(202)	현대건설	64	KB금융	(171)
	현대중공업지주	97	호텔신라	(115)	현대차	63	삼성물산	(161)
	SK이노베이션	94	S-Oil	(101)	삼성중공업	63	삼성바이오로직스	(159)
	GS건설	94	카카오	(88)	삼성SDI	55	호텔신라	(149)
	KB금융	82	삼성SDI	(81)	금호석유	51	넷마블	(127)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업종	디스플레이	74	건강관리	(658)	디스플레이	51	건강관리	(464)
	기계	21	비철,목재등	(160)	소매(유통)	24	미디어,교육	(137)
	화학	15	호텔,레저서비스	(144)	건설,건축관련	8	반도체	(76)
	자동차	10	미디어,교육	(112)	철강	6	화학	(68)
	상사,자본재	7	조선	(85)	기계	3	화장품,의류,완구	(65)
종목	서울반도체	101	포스코켄텍	(159)	서울반도체	56	신라젠	(238)
	비에이치	53	셀트리온헬스케어	(149)	바이로메드	55	셀트리온헬스케어	(188)
	컴투스	48	신라젠	(117)	제넥신	43	메디톡스	(130)
	필러비스	40	에이치엘비	(104)	대아티아이	36	카페24	(55)
	우리산업	20	파라다이스	(89)	에코마케팅	34	에이치엘비	(47)
	크리스토프앤씨	18	제넥신	(74)	아난티	26	SKC코오롱PI	(42)
	동성화인텍	15	카페24	(61)	컴투스	26	파라다이스	(39)
	에코프로	12	에스엠	(47)	차바이오텍	25	스튜디오드래곤	(37)
	피에스케이	10	엘앤에프	(44)	엔지켄생명과학	19	JYP Ent.	(34)
	성광벤드	9	바이로메드	(36)	CJ ENM	17	에스티큐브	(32)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

KOSPI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삼성전자	293,363	45,700	(1.40)	(10.32)
SK하이닉스	52,198	71,700	(2.71)	(6.27)
셀트리온	36,177	288,500	(1.20)	30.48
삼성바이오로직스	34,075	515,000	(4.28)	38.81
현대차	27,456	128,500	(0.39)	(17.63)
POSCO	25,633	294,000	(0.51)	(11.58)
LG화학	24,919	353,000	(4.21)	(12.84)
삼성물산	23,901	126,000	(1.56)	0.00
KB금융	22,787	54,500	(1.98)	(14.04)
NAVER	22,711	689,000	(3.37)	(20.80)

KOSDAQ (단위: 십억원, 원, %)

종목명	시가총액	증가	1D	YTD
셀트리온헬스케어	12,225	87,000	(3.44)	(19.89)
신라젠	6,381	91,400	(14.42)	(2.25)
CJ ENM	5,547	253,000	(1.06)	9.52
에이치엘비	4,387	112,800	(6.39)	191.85
포스코켄텍	4,076	69,000	(4.70)	73.37
나노스	3,897	7,940	(1.98)	241.51
바이로메드	3,750	235,000	(2.89)	43.91
메디톡스	3,320	587,000	(3.93)	21.06
스튜디오드래곤	3,087	110,100	(5.33)	69.38
필러비스	2,756	214,000	0.00	(13.57)

Global Asset Monitor

글로벌 주식		(단위: %)					
구분	지역/국가	종가	1D	1W	1M	YTD	
지역	MSCI 세계	525.06	0.15	(0.20)	0.42	2.35	
	MSCI 선진국	2,188.19	0.19	(0.27)	0.58	4.03	
	MSCI 신흥국	1,046.40	(0.14)	0.44	(0.91)	(9.67)	
DM	S&P500	2,924.59	0.36	0.18	0.80	9.39	
	Dow Jones	26,651.21	0.73	0.34	2.64	7.82	
	Nasdaq	8,037.30	(0.11)	0.55	(0.89)	16.43	
	Russell 2000	1,672.99	(1.39)	(1.90)	(3.89)	8.95	
	영국 FTSE 100	7,447.42	(0.64)	(0.80)	0.20	(3.13)	
	프랑스 CAC	5,449.26	(1.05)	(0.54)	0.78	2.57	
	독일 DAX 30	12,214.96	(1.01)	(1.29)	(1.21)	(5.44)	
	스페인 IBEX	9,295.90	(1.18)	(2.08)	(1.10)	(7.45)	
	일본 니케이	24,270.62	0.10	1.38	6.15	6.61	
	홍콩 항셱	27,126.38	(2.38)	(2.96)	(2.73)	(9.33)	
	EM	코스피	2,309.57	(1.25)	(0.60)	(0.57)	(6.40)
		코스닥	794.99	(2.64)	(3.18)	(2.69)	(0.43)
중국 상해종합		2,821.35	1.06	3.37	3.53	(14.69)	
홍콩 H지수		10,754.56	(2.39)	(2.47)	(1.11)	(8.15)	
인도 Sensex		36,526.14	0.83	0.61	(5.48)	7.25	
베트남 VN		1,018.79	0.58	0.80	2.96	3.51	
인도네시아 JCI		5,875.62	(1.16)	0.02	(2.37)	(7.55)	
러시아 RTS		1,184.76	(0.55)	1.34	8.47	2.63	
브라질 Bovespa		78,623.66	(0.91)	0.82	2.54	2.91	
멕시코 Mexbol		49,841.47	0.68	0.86	0.59	0.99	
글로벌 업종	에너지	186.88	(0.20)	0.44	3.92	7.11	
	소재	198.63	(0.45)	(1.64)	(0.10)	(7.96)	
	산업재	273.44	(0.41)	(0.68)	(0.03)	(6.44)	
	경기소비재	251.47	(0.40)	(1.09)	(0.43)	(5.19)	
	필수소비재	307.76	(0.34)	0.19	0.60	2.73	
	헬스케어	611.94	(0.24)	1.99	1.63	15.86	
	금융	169.07	(0.71)	(2.10)	(1.79)	(7.12)	
	IT	424.79	(0.35)	0.28	0.30	16.90	
	통신서비스	169.62	(0.70)	(0.80)	0.77	(4.27)	
	유틸리티	164.40	(0.45)	(0.62)	(0.81)	(3.67)	

글로벌 환율		(단위: %)				
구분	지수/국가	종가	1D	1W	1M	YTD
지수	달러 인덱스	95.69	0.41	1.66	0.58	3.87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125.74	(0.17)	0.23	0.44	5.60
미주	브라질	4.02	0.77	1.77	3.47	(17.59)
	멕시코	18.86	(0.72)	0.70	1.71	4.24
아시아	한국	1,119.13	(0.66)	0.02	(0.78)	(4.62)
	일본	113.65	0.25	(0.60)	(2.27)	(0.84)
	중국	6.87	0.31	(0.17)	(0.96)	(5.27)
	대만	1.40	0.77	1.15	0.65	8.91
	인도	72.91	(0.58)	(0.38)	(2.34)	(12.40)
유럽	유로존	1.15	(0.60)	(2.19)	(0.95)	(4.13)
	영국	1.30	(0.61)	(1.68)	0.72	(4.07)
	러시아	65.54	(0.84)	0.38	3.65	(11.98)

주: 달러 대비

글로벌 채권		(단위: bp)				
지역	국가	종가	1D	1W	1M	YTD
미주	미국	3.05	(3.35)	(4.63)	18.97	64.47
	캐나다	2.51	8.00	5.80	27.90	46.20
	브라질(USD)	11.60	(16.00)	(24.00)	(60.10)	133.90
	멕시코	7.93	(0.20)	(11.20)	0.40	26.80
유럽	독일	0.42	(5.40)	(12.60)	9.10	(1.00)
	영국	1.53	(5.70)	(10.10)	10.40	34.10
	프랑스	0.78	(4.60)	(7.60)	9.80	(0.50)
	이탈리아	3.39	9.50	51.60	15.80	137.80
	러시아	4.88	(0.90)	(17.40)	(9.40)	100.50
아시아	한국	2.38	2.50	(3.00)	7.00	(8.70)
	일본	0.13	(0.60)	(0.30)	2.30	8.20
	중국	3.63	(1.10)	(7.40)	(1.40)	(27.70)
	호주	2.67	0.10	(8.00)	15.00	3.90
	인도	7.99	(3.60)	(8.40)	3.60	66.20

원자재		(단위: %, USD/oz, bu, MT)				
구분	지수/상품	종가	1D	1W	1M	YTD
지수	S&P 원자재 지수	496.04	2.01	2.81	5.84	12.11
	LMEX 지수	3,004.30	0.32	0.15	2.60	(12.13)
	CRB 지수	415.23	0.07	(0.11)	0.93	(3.96)
에너지	원유(WTI)	75.35	0.07	4.25	7.95	24.71
	원유(Brent)	84.69	(0.34)	3.44	9.39	26.65
	천연가스	3.12	0.94	1.33	7.10	5.76
금속	금	1,193.00	0.50	(0.56)	(0.72)	(8.88)
	은	14.54	0.19	0.95	0.67	(15.22)
	구리	6,249.00	(0.14)	(1.64)	4.59	(13.77)
	아연	2,656.00	1.68	3.59	8.10	(19.98)
농산물	알루미늄	2,084.00	1.07	1.17	(1.93)	(8.11)
	S&P 농산물 지수	280.62	1.30	(0.15)	(1.90)	(0.54)
	옥수수	364.25	(0.41)	0.14	(0.21)	(5.14)
	밀	510.50	0.20	(1.97)	(6.42)	5.91
대두	856.50	(0.15)	1.27	1.54	(12.22)	

변동성		(단위: %)				
구분	지수	종가	1D	1W	1M	YTD
미국	VIX	12.63	5.25	1.69	(1.79)	14.40
유럽	VSTOXX	15.93	11.92	21.02	1.89	17.90
한국	VKOSPI	11.81	1.81	7.66	1.46	(2.07)

## 한 눈에 보는 매크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4	25	26	27	28
韓> 휴장(추석)  美>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 발효	韓> 휴장(추석)  美> 9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대 (138.4, 132.1, 133.4)	韓> 휴장(추석)  美> 연준 FOMC 금리결정 (2.25%, 2.25%, 2.00%)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9%, n/a, 1.6%) 8월 신규주택매매(천건) (629, 630, 627)	美> 연준 파월의장 연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14, 210, 201) 8월 내구재주문 (4.5%, 2.0%, -1.7%) 8월 도매재고 MoM (0.8%, 0.3%, 0.6%) 2Q GDP 연간화 QoQ (4.2%, 4.2%, 4.2%)  유럽> 8월 M3 통화공급 MoM (3.5%, 3.9%, 4.0%) 9월 소비자대지수 (-2.9, -2.9, -2.9)	美> 8월 개인소득 (0.3%, 0.4%, 0.3%)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100.1, 100.6, 100.8)  中> 9월 차이신 제조업 PMI(30일) (50.0, 50.5, 50.6) 9월 제조업 PMI(30일) (50.8, 51.2, 51.3)  日> 8월 유효구인배율 (1.63, 1.63, 1.63) 8월 실업률 (2.4%, 2.5%, 2.5%) 8월 광공업생산 MoM (0.7%, 1.4%, -0.1%)
1	2	3	4	5
韓> 9월 수출 YoY (-8.2%, -8.5%, 8.7%)  美> 9월 마켓 제조업 PMI (55.6, 55.6, 55.6) 8월 건설지출 MoM (0.1%, 0.4%, 0.1%)  유럽> 9월 마켓 제조업 PMI (53.2, 53.3, 53.3)  日> 3Q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19, 22, 21)	美> 파월 연준의장 연설	韓> 휴장(개천절)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2.9%)  유럽> 영국 보수당 전당대회(~3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13, 214) 8월 제조업 수주 (n/a, 2.2%, -0.8%) 8월 내구재 주문 (n/a, n/a, 4.5%)	韓>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9월 CPI YoY (n/a, 1.6%, 1.4%)  美> 8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53.0, -50.1) 9월 비농업고용자수변동(천명) (n/a, 185, 201) 9월 실업률 (n/a, 3.8%, 3.9%)
8	9	10	11	12
	韓> 휴장(한글날)  日> 8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n/a, 2009.7)	美>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2.9%) 9월 PPI 최종수요 MoM (n/a, 0.2%, -0.1%) 8월 도매재고 MoM (n/a, n/a, 0.0%)  日> 8월 핵심기계수주 MoM (n/a, n/a, 11.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9월 CPI MoM (n/a, 0.2%, 0.2%)  日> 9월 PPI YoY (n/a, n/a, 11.0%)	韓> 9월 실업률 SA (n/a, n/a, 4.2%)  美> 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n/a, n/a, n/a)  日> 8월 3차 산업지수 MoM (n/a, n/a, 0.1%)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일)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